

일본의 이슬람¹

김영남²

I. 시작하는 말

단일 민족의 사회인 일본에도 정착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여러 종교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³ 아주 세속적인 것 같으면서도 매우 종교적인 일본인들의 삶의 양식은 강한 종교적 정체성을 지니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일본에 오게 된 이주 무슬림들에게 공감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 19세기 일본에 도래한 이슬람은 처음부터 정부와 관련된 종교로서 아직 그 수는 미미하고 일본인들에게 그리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 천년에 들어서 이슬람 세계의 막강한 자원적 힘을 빌어 일본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한편, 16세기 후란시스 사비에르에 의해 처음 전파된 기독교는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일본 사회에 끼쳐왔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하기 전 기독교인은 200만 명까지 이르기도 했는데, 그런 종교적 성장을 일본학자들은 일본의 종교적 전통과의 겹침현상으로 설명한다. 기독교가 태양을 인격화하여 숭상해온 일본 민중들의 종교성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⁴ 일본의 종교적·문화적 상황은 다양한 종교의 공존에 의한 다양성의 특징을 갖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 종교 신자로서 이것은 일본적

1 이글은 이슬람 연구 4, 『아시아의 무슬림 공동체』에서 1998년 발표한 자료를 보충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2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강사, 햇빛트리니티 한국이슬람 연구소 연구원

3 2008년 6월1일자일본법무성 입국관리국 통계자료는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재일 외국인의 수가 2,153,973명이라고 밝혔다. 재일외국인 다수는 중국, 한국, 남미, 필리핀 등 출신이고 그 외 지역 출신은 30만을 조금 넘는다. 위키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wiki/2009-05-27>

4 김승철, "일본의 기독교 사상에 대한 소론-이른바 '문화적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교회 제37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 2007, 10, 18. p.362.

종교관의 특성을 나타내준다. 일본인들은 종교를 ‘사회적 기능 내지 습속’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태도 때문에 일본 기독교는 200년 이상 탄압을 경험하면서도 기독교가 신앙을 유지해올 수 있었다.⁵ 그러나 현대 일본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현세 이익주의 완강한 부정과 배타적 유일신론 때문인데, 따라서 [접촉-수용-통합=변용]이라는 문화법칙을 따르지 않고 유일신론을 일본인에게 어떻게 수용시킬 것인가는 일본 기독교가 씨름하고 있는 난제이다.⁶

오늘 날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부상하고 있는 이슬람은 100여 년 전에 일본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미미한 세력으로 일본 사회에 남아 있던 이슬람은 이제 기독교가 씨름하고 있는 난제들을 유연성 있게 다루면서 현세이익주의를 외면하지 않고, 이슬람 금융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 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이슬람의 지평을 넓혀 갈 수도 있다. 이런 일본 이슬람에 대한 전망은 이슬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기독교 선교적 관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새롭게 부상하는 이슬람의 힘이 국가의 중심점이 확실한 일본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통해 고찰해볼 것이다.

II. 일본의 종교 상황과 정책

1. 일본의 종교관과 종교상황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다신교적 우상숭배와 미신에 젖어 있으며, 따라서 매우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현대성과 문화와 종교적 전통성이 일본 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일본에는 수 백 개의 종교가 존재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종교를 조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종교 인구에 대한 통계는 출처 자료마다 차이가 난다. 일본에 수많은 종교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 영적인 허무감의 양상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겠다.⁷ 일본의 종교 인구는 실제인구 1억2천8백만의

5 위의 글, p.364.

6 위의 글, p.366.

7 조슈와 오가와, 『21세기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과제』, 변창욱 편역, 『아시아복음화를 위한 새 마음』(서울: 미션아카데미, 2007), p.59.

두 배를 넘으며, 2000년 종교상황을 살펴보면 국가 종교로서 신도가 90%를 차지하고, 오랜 역사를 갖고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는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는 2% 이하에 불과하나 그 사회적 영향력은 크다. 이슬람은 0.12%이지만 최근 6.1%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⁸ 아사히신문 2007년 5월 4일자에 의하면 2000년 일본 무슬림은 63,552명으로 추산되었고, 이주 무슬림은 7만에서 10만에 이르는 것으로 보며, 이들을 포함해서 전체 15만 이상의 무슬림이 일본사회에 존재한다고 보도되었다.⁹ 또 다른 출처인 세계 무슬림 인구 통계기관은 2008년 일본의 무슬림 인구를 18만 3천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0.14%에 해당한다.¹⁰

2. 국가와 종교

일본인의 종교관은 일본근대사회 형성과정을 통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되어 왔다. 현재 일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교’라는 말은 메이지, 다이쇼, 그리고 쇼와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¹¹ 메이지정부가 자기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한 신도의 국교화는 기독교가 일반국민에게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서구 열강에 대한 민족적인 위기의식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신도의 국교화는 그 외의 타종교를 일본사회에서 위축시켰는데, 정부는 ‘종교’가 미신이라는 인식을 유포시키면서, 신도의 非종교론을 주장하여 신도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¹³

1941년 일본 정부는 전쟁 수행을 위해 모든 종교단체의 통합과 협력을 이끌기로 하고 일본의 3대 종교 대표자에게 일본 정신계 선도를 요청했다.¹⁴ 일본 정부는 ‘종교단체법’의 목적에서 종교의 역할은 국민정신 선도라고 간주하고, 종교보호라는 미명하에 종교를 국

8 패트릭 존스톤 & 제이슨 맨드릭, 조이선교회 옮김,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서울: 조이선교회/WEC, 2002), p.599.

9 위키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wiki/islam_in_Japan, 2009-05-02

10 이슬람인구통계 <http://www.islamicpopulation.com> 2009-05-27 이 통계는 한국의 무슬림은 43만 4천명으로 국민의 0.9%라고 밝히고 있다.

11 호사카 순지, 김호성 옮김, 『왜 인도에서 불교는 멸망했는가』(서울: 한길은 더, 2008), pp.27-33.

12 위의 책, p.34.

13 위의 책, p.37.

14 사와 마사히코, 『일본 기독교회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pp.139-140.

가 규제 아래에 두어 천황 중심의 아시아 침략정책을 수행하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1945년 종전과 더불어 모든 종교에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되었고,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도 없고 문서에 개인에 대한 종교표기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현행 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종교적 자유가 위협 받는 분위기이다. 1979년에 일본은 천황의 이름과 천황의 통치를 정부의 공식적 이름으로 사용할 것을 법제화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1989년에는 아키히토 천황의 즉위식이 신도의 규례에 따라 진행되었고, 1999년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관련 법안이 비준되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길을 열어놓았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국기 제양과 국가 제창을 강요하는 법안이 통과 되고 8월 9일이 국기와 국가를 기념하는 날로 지정되어 국가종교(state religion)로서 신도와 천황의 위치를 공고화 시키고 있다.¹⁵

이런 일본의 국가 중심주의는 국제화 지향적인 일본 문화론을 “어떤 내용이라도 제멋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훨씬 세련된 형태”와 연결되어 패전 후 모습을 바꾼 ‘제국의식’의 징후를 보여준다.¹⁶ 그것은, 전후 일본 사회 안에 강력한 엘리트적 중핵이 형성되어, 그 중심에 유포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일본 문화 담론의 체계가 문화적 차이 기술을 통해 일본인의 문화적 동일성을 재현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¹⁷

일본의 대외관은 일본인의 대내외적 실천성과 관련된 정신의 일부로 보인다. 따라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식민지배라는 지리적 확대와 연결되어 서구의 오리엔탈리즘 사고로 바라본 아시아 식민지였던 것이다.¹⁸ 아직도 이와 같은 제국적 정신이 자리하고 있는 현대 일본 사회에서 이슬람 세력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인지는 일본 외부 기독교인으로서 주시해볼 만한 것이다.

III. 이슬람의 일본 전래와 발전

15 조슈와 오가와, 앞의 글, pp.59-60.

16 강상중 지음, 이명덕, 임성모 옮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서울: 이산, 1977), p.79.

17 위의 글, p.80.

18 위의 글, p.113.

1. 이슬람세계와 조우

이슬람이 일본인들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1877년인데, 당시 이슬람은 서구의 한 종교 사상으로만 알려졌고 무함마드 전기가 일본어로 번역되기는 했지만 역시 문화사의 한 인물로서 소개되었을 뿐이었다.¹⁹

일본에서 농학을 공부한 사우디아라비아인 살리히 사마리(Salih M. Samarri)가 인용한 1907년 출간된 『일본 여행』에 의하면, 한 무슬림이 1906년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종교회의에 참여했다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에서 온 무슬림들과 함께 이슬람 포교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 1만2천이나 되는 일본인이 이슬람으로 입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²⁰, 당시의 상황을 보아 그것은 일본인 보다는 이주 무슬림들로 구성된 조직체였을 것이다.

이슬람세계와 일본의 실제적인 접촉은 선교적 임무를 띠고 일본에 들어온 터키의 무역선 알 투그룰(al-Tugrul)호 사건을 통해서였다. 일본 메이지 천황은 오토만 터키 제국 술탄 압둘 하미드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귀국의 국민과 우리 국민은 서로를 알기 원하는 바이니, 우리 국민에게 귀국을 잘 소개 할 수 있는 사신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87년 코마추미야 왕자 부부가 메이지 천황의 친서와 선물을 가지고 술탄압둘 하미드의 환영을 받으며 이스탄불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²¹ 당시 서구 열강 세력들의 도전에 직면하여 있던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국으로 남아 있는 터키에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했던 것 같다. 신도 외의 여타의 종교를 위축 시킨 메이지 유신 배경을 보면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관심보다는 세계 정세 흐름 속에서 일본을 지키고 협력관계를 얻으려 했던 것이 분명하다.

1890년 양국 간의 외교적 임무를 띠고 터키 무슬림 609명을 태운 ‘알 투그룰’호는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여 3개월 간 도쿄에 머문 후 외교와 선교적 과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귀항 길에 올라선 ‘알 투그룰’호는 일본 근해에서 태풍을 만나 파선하여 609명 중 69명만 살아남았다. 이때 요시마 섬 주민들은 파선한 터키 무슬림들을 구조하

19 Abu Bakr Morimoto, *Islam in Japan* (Tokyo: Islamic Center, 1980), p.9.

20 Salih M. Samarri, “일본에 있어서 이슬람 포교의 역사와 발전”, <http://www.islamcenter.or.jp/jpn/Nihontoislam.htm>, 2009-04-08

21 Salih M. Samarri, “The relation Between Jaapan and Middle East”, *An Islamic Perspective* (Tokyo: Islamic Center, 1997), p.3.

여 잠깐이나마 돌봐주며 그들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그들과의 우정을 맺게 되었고, 일본 정부도 생존자와 시신들을 터키 정부에 보내준 다음, 사고 지점 부근에 기념비까지 세워 주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터키와 일본 간의 우정의 상징으로 남아있고, 5년 마다 터키와 일본 양국은 교대로 이 사건을 기념하고 있다. ‘알 투그룰’호 사건 이후 양국 관계가 더욱 우호적 관계로 발전하여 오트만 제국 특사가 1904년 일본을 방문하여 요코하마 모스크 건립을 협의하기도 했다.²²

2. 일본 이슬람의 발전 과정

2.1 이슬람의 일본사회 정착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무슬림 세계에 큰 격려가 되었다. 아시아 국가가 서구의 제국주의 열강을 군사적으로 패배시켰다는 아시아인의 자부심의 물결이 이슬람 세계에 확산되어 일본과 일체감을 불러일으켰다.²³ 전 세계의 무슬림들은 일본의 승리를 축하하고, 특히 터키의 술탄 압둘 하미드는 군사 읍저버까지 러일 전쟁에 파견하여 자세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였다. 또 이집트의 한 작가에 의하면, 수많은 이집트 군인들이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고 일본 군대에 지원자로 참여하여 일본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았으며 일부는 이집트로 귀국하고 일부는 일본에 남았다고 한다.²⁴

사실 아시아의 많은 무슬림 국가들은 일본의 식민제국주의 정책에 희생되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동 무슬림들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기원했던 것은 당시 러시아 거주 무슬림들이 러시아 정교회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슬림들의 입장에서 일본의 ‘脫亞入歐’적인 모습보다 러시아를 서구세력과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 이슬람 전파는 대략 다섯 시기의 과정을 거쳐 왔다. 몇몇 일본인들의 이슬람수용의 시기(1891-1922), 러시아 혁명을 피하여 나온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로부터 타타르계 무슬림들의 일본 유입의 시기(1923-1952), 파키스탄 무슬림 학생들과 선교 지도자들(Dawa-leader)의 유입의 시기(1953-1972), 석유파동으로 인한 아랍 국가들과 이슬람에 대한 관심의 시기(1973-1976), 그리고 다섯 번째 시기는 1976년 이후인데, 제일 이주 무슬림들과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난 세계적 사건들을 통하여 이슬람과 그 세계

22 위의 글, p.3.

23 버나드 루이스 엮음, 김호동 옮김, 『이슬람 1400년』(서울:까치, 1994), p.513.

24 Salih M. Samarra, 앞의 글, p.4.

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있다.²⁵ 최근 일본 경제계는 아랍 산유국들의 금융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이슬람 금융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2.2 초기의 무슬림들의 활동

일본 사회에서 초기 무슬림들의 기록은 ‘알 투굴’호의 사고로 사망한 터키인들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모금액을 전달하러 1893년 터키에 갔다가 무슬림이 되어 그곳에서 18년간 살았다는 토라지 야마다에 관한 기록이 최초인 것 같다.²⁶ 그는 환대를 받으며 일곱 명의 터키 장군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머무르게 되었다고 하며,²⁷ 그는 일본과 터키와의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양국의 경제적·문화적 교류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⁸

이슬람이 일본에 종교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1909년 개종하여 성지순례까지 한 미즈타로 야마오카와 비슷한 시기에 인도 봄베이에서 개종하고 귀국하여 일본에 이슬람을 전파했던 아마드 아리가리라에 의해서라고 전해진다.²⁹ 또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무슬림들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귀국한 후에 활약했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 선교적 활동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³⁰ 초기 일본 무슬림 중에 또 하나의 주요 인물은 일본과 중국의 무슬림 우호 관계에 중요하게 공헌한 후쿠다 기쿠오인데, 그는 노일 전쟁 직후 중국 주구(周口)에서 무슬림 청년들을 위해 동학당(東學堂)이라는 일본어 학교를 개설하여 일본과 중국 무슬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해 놓았다.³¹

위의 몇몇 이슬람 개종자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 공동체적 무슬림 사회 존재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았다. 무슬림 공동체가 일본에 가시적으로 형성된 것은 제1차 대전과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피난 온 무슬림들에 의해서였다. 이런 무슬림들은 도쿄, 고베, 나고야 그리고 다른 주요 도시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각 지역에서 정착과 더불어 그들의 종교 생활은 주민들에게 이슬람 선교가 되어

25 Islamic Center-Japan, *The Yearly Report* (1996-1997).

26 Morimoto, 앞의 글 p.14.

27 위의 글, p.15. 그 일곱명 중에는 터키 공화국의 아버지 케말 아타투르크도 포함되어 있었다.

28 위의 글, p.16.

29 위의 글, p.9.

30 나일즈 아흐마드 바루라즈 테헤라위, "일본과 이슬람" *Assalam*, vol.70, p.9. 1935년에 발행된 인도의 『지식』지 제 35권 제 5호에 실렸던 글이다.

31 핫치 무스타파 오무라 후지오, "周口の東學堂" *Assalam*, vol.71, pp.42-46.

무슬림 수가 증가했다.

1935년 당시 일본에 살고 있는 무슬림은 크게 타타르계와 인도계 두 개의 민족으로 나눌 수 있고 그밖에 소수의 무슬림들로서 터키인, 이란인, 아프가니스탄인, 이집트인, 그리고 시리아인 등이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부터 피난 온 타타르계 무슬림들은 4백 명 혹은 5백 명에 이른다. 그들은 도쿄와 고베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는데, 무슬림 사회 내에서도 민족주의적 대립이 나타나 분열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³² 당시 일본인 무슬림은 외국인 무슬림과 결혼해서 무슬림이 된 일본 여성들을 포함한 5-6명과 그 자녀들 12명 정도였다고 한다. 인도인 무슬림들은 1905년부터 요코하마, 고베 등에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1923년 관동 지진 이후에 고베에 이주한 약 150명의 무슬림들은 모금한 돈으로 1935년에 고베 모스크를 건축했다.³³ 그 후 도쿄와 나고야(1958년), 오사카(1977년)에 모스크가 건립되었고 작은 기도처를 포함하여 100여개가 넘는 이슬람 기관들이 세워져있다.

초기 무슬림들의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테헤라위라는 인도 한 무슬림 선교사가 일본의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일본에서의 이슬람 선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것이다. 무슬림 선교사는 1935년 당시 일본 인구는 6천만이고, 인구의 70%가 불교인, 30%가 신도신자, 그리고 기독교인은 1%이하였지만 기독교 신자들이 일본 사회에 미치는 사상과 윤리적 영향력은 불교이상이라고 지적했다.³⁴ 이슬람의 선교사(다이)로서 테헤라위의 상황화 주장은 무슬림들이 기독교 선교사로부터 많은 선교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우선 3년간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배우며 적응한 후 선교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 세기에 걸친 선교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떠나가는 기독교 선교가 무슬림 선교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테헤라위는 다음과 같이 이슬람의 선교 상황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무슬림들은 올바른 이슬람의 지식을 공여하기 위해 각국의 개별적 상황 이상으로 스스로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초기 수 세기 동안의 이슬람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이슬람을 전파해 나가는 나라들의 사정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³⁵

32 테헤라위, 앞의 글, p.9.

33 Morimoto, 앞의 글, p.9.

34 테헤라위, 앞의 글, p.11.

35 위의 글, p.12.

또한 테헤라위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 이슬람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인도 무슬림들의 자부심을 격려하면서 일본에 있는 인도 무슬림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 무슬림들은 영국의 이슬람 선교 센터 건립 후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이슬람 선교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일을 위한 방법으로, 영문 이슬람 잡지를 공공 기관에 발송하기, 영자 신문에 이슬람에 관한 기사와 글 발표하기, 이슬람 강연 개최, 이슬람 도서관 건립, 그리고 이슬람 센터 건립 등을 제시하였다.³⁶

2.3 일본의 이슬람연구

모스크가 제일 이주 무슬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건립되었다면, 이슬람 기관들은 우선적으로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확장 정책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일본군부가 만들어낸 것이다. 제2차 대전 기간에 일본 군인들의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과 밀접한 접촉을 통하여 일본 정부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갖고 이슬람 연구 기관들을 설립했다. 연구 기관을 통하여 이슬람 관련 서적들이 1935년에서 1943년 사이에만도 100개 넘게 출간되었는데, 이슬람 연구를 활발하게 한 연구기관 중의 하나는 ‘대일본이슬람협회(Great Japan Islamic Association)’였다. 당시 이슬람 연구 기관들은 무슬림들에 의해서 주도 된 것이 아니었고 그 목적도 이슬람 전파가 아니었다. 그 결과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자 군 정부 주도의 이런 이슬람 연구 기관들은 곧 사라졌다. 제2차 대전 이전에 출현한 이슬람 관련 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이슬람문화연구소(Islamic Culture Institute), 무슬림세계연구소(Muslim World Research Institute), 대일본이슬람협회(Great Japan Islamic Association), 도쿄 이슬람회(Tokyo Islamic Congress), 일본외무부 이슬람부 등이다.

종전 이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새 헌법이 발표되자 종교적 목적의 이슬람의 기관들이 급속히 생겨나기 시작하여, 1952년 100여명의 무슬림들이 모여 현재의 “무슬림 협회”가 생겨났다. 이 협회 형성으로 인해 일본에서 이슬람 다와가 사실상 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독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과의 외교, 경제, 그리고 문화 교류와 더불어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아랍어와 이슬람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 무슬림 국가들은 자국에 온 일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일본 내에서도 이슬람국가 대사관들이 이슬람 활동에

36 위의글.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슬람이 확장되어갔다. 이런 활동에는 이슬람 축제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고 이슬람의 다양한 출판물도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하지 우마르 미타가 1972년에 꾸란을 번역한 『아랍-일본어 성꾸란 의미』이다.³⁷

IV. 일본 이슬람의 현황과 전망

1. 이슬람에 대한 현대 일본인의 인식

이슬람에 대한 일본인의 시각은 서구의 對이슬람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제일 무슬림들의 대부분의 견해이다. 무슬림의 입장에서 일본 주류 사회 인사들의 이슬람에 관한 지식은 무지에 가깝다. 또 무슬림들은 일본인들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서구 미디어의 영향과 재일 무슬림들 노동자들 때문이라고 보았다. 무슬림을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하며 적대시하는 서구적 태도가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다.³⁸

반면에 무슬림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경제 발전에는 긍정적이지만, 물질적 사회와 친미적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³⁹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는 테러와 공포를 일으키는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슬림들은 이런 이미지가 서구의 시각을 통해 일본인에게 그대로 왜곡 전달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생활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 형성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⁴⁰

특히 현대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일본이 아랍방송과의 협력으로 직접 전함으로써,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시각이 보다 객관적이며 선명해져 가고 있다고 무슬림들은 생각한다.⁴¹ 그러나 이슬람 세계의 커다란 사건들이 일본에서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슬람 세계와 정치적·문화적인 관계 기반을 다져가는 새로

37 테헤라위, 앞의 글, p.11.

38 Chandra Musaffar, "Japan, Islam and The West: Peaceful coexistence or conflict? An Asian Muslim Perspective", from Articles on Islamicity, <http://www.islamicity.com/articles> 2009-02-28

39 위의 글, p.4.

40 상촌 메리나, "나의 이슬람 입교 감사", *Assalam*, vol. 71, p.47.

41 ElMostafa Rezrazi, "The Media and Religion: How Japanese Media cover the Islamic world, Mar. 12, 2005. <http://www.cismor.jp/en/research/lectures/050312.html>. 2009-05-02

은 기회를 열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9.11 사건과 이라크 전쟁 이후 자살폭탄 테러⁴² 같은 사건들로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2008년 몇 장이 찢겨져 나간 꾸란이 발견된 사건과 “조조의 기상천외한 모험(JoJo's Bizarre Adventure)”라는 만화연재물에 꾸란을 악하게 묘사했던 사건은 일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항의하자 만화영화사가 결국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사건은 매듭지어졌다.⁴³

2. 이슬람의 활동과 일본의 대응

제 2차 대전 중 제국주의 팽창이라는 야망을 가지고 일본이 높은 관심을 보였던 이슬람은 종전 후 정치와 종교 분리정책에 따라 무관심해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르러 중동에 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일본은 재빠른 행동으로 중동-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서둘러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의 출구를 찾아 이슬람국가인 중동의 산유국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면서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시켜 왔다. “일본과 이슬람 세계와의 문화적 대화”세미나가 연례적으로 열리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⁴⁴ 두 세계 간의 대화는 두 세계의 상호 이해와 관계 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⁴⁵ 일본 외무성 장관 고노 요헤이는 GCC나라들을 순방하면서 문명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이슬람 세계와의 “문명 간의 대화” 증진, 수자원 개발, 그리고 광범위한 정치적 대화의 증진을 포함하고 있다.⁴⁶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이슬람 세계와의 유대관계 형성 프로그램의 하나가 바로 외무성에서 주관한 일본-아랍 이슬람 기자들 모임(Japan-Arab Islamic Journalists Meeting)이

42 일본 저널리스트였던 다나카 사카이는 자살폭탄 테러의 원조로 일본의 '가미가제'를 들면서, 그는 1972년 일본 적군파 오키모토 고조가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PFLP) 작전으로 일으켰던 '텔아비브 공항난사사건'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살폭탄 테러'발단이라고 주장한다. 다나카 사카이, 이웅현 옮김, 『텔레반과 아프가니스탄』(서울:전락과 문화, 2007), p.56.

43 http://en.wikipedia.org/wiki/Religion_in_Japan 2009-0502

44 제 1차 세미나가 쿠웨이트에서 개최되었는데 무슬림들은 이 세미나에서 이슬람적인 요소들을 밝히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ttp://www.islam.gov.kw/news>, 2009-05-02

45 <http://www.bcsr.gov.bh/BCSR/islamdialogue/web/objectiveseng.html> 2009-05-02

46 <http://www.bcsr.gov.bh/BCSR/islamdialogue/web/konoeng.htm> 2009-05-02

다. 2007년 2월8일 니폰 프레스 센터(Nippon Press Center)에서 열린 제 2차 심포지움이 일본,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기자18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다문화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Role of the Media in Multi-cultural Society)”라는 주제로 열리기도 했다.⁴⁷

현재 일본 내 여러 대학에 이슬람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개발 연구소와 같은 기관은 무슬림 국가들과 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이슬람에 대한 일본인들의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표면적 관심에 그치고 있다고 무슬림들은 비판한다.⁴⁸

사실상 일본의 이슬람에 대한 관심은 거의 경제적, 정치적 이유인데, 현대 일본 경제계에서는 이슬람 금융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5년 바레인의 이슬람 투자은행 알 카피타가 일본의 임대용 주택에 투자하여 이슬람 자본의 일본 상륙을 시작한 이래 일본의 잠재적 시장에 대한 해외 이슬람 금융기관 관계자의 기대감 뿐 아니라 일본인들의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⁴⁹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대 금융정세 하에서 이미 상당한 이슬람 자본이 일본에 상륙해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중동 산유국의 운용자산이나 자금 수요의 증가는 이슬람과 일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해준다. 일본은 무슬림이 많지 않은 자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무슬림을 고객으로 한 해외 사업에서 이슬람 금융에 참여하면 국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슬람 금융이라는 통로를 통해 산유국의 방대한 투자를 아시아로 유치하여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시아 외교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이다.⁵⁰ 그러나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는 기관은 샤리아 보드(샤리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대비하여 와세다 대학원의 경우 2008년 이슬람 금융 강좌가 개설되기도 했다.⁵¹ 이슬람 금융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한 일본 기업들은 ‘이온 크레딧 서비스’를 비롯하여, 도요타 자동차,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등이 있고, UAE와 발전 및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카타르와 친환경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세계최대 석유 화학 종합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⁵²

도쿄 대학을 비롯한 일본 내 대학들의 이슬람 지역학에 대한 연구는 이슬람이 중동 외에

47 http://www.mofa.go.jp/region/middle_e/meet072.html 2009-05-02

48 이다카기, 구로다, “이슬람 세계의 이해를 위하여”, *Assalam*, vol.26, p.1.

49 오시다 에츠아키, 이진원 옮김, 『이슬람 금융이 뜬다』(경기: 예지, 2008), pp.144-145.

50 위의 글, p.168.

51 미야지키테츠야, 김종원 지음, 송창규 옮김, 『이슬람금융이 다가온다』(경기: 물푸레, 2008), pp.178-181.

52 위의 글, pp.193-206.

도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뿐 아니라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자리를 볼 때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와세다 대학교의 이슬람 지역연구 단체의 하나인 아시아 무슬림 네트워크(Muslim Networks in Asia)는 지역 모스크나 무슬림들이 일본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열기도 한다.⁵³ 무슬림이 거주하는 지역의 타민족들과의 공존관계, 인종적 갈등, 지역 간의 분쟁, 그리고 인구폭발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이슬람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의 경제적 영향, 무슬림 이주 국가 내에서 야기 되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이슬람 지역연구는 중동과 다른 이슬람 지역까지 포괄한다.⁵⁴ 일본에서 중요한 지역연구 프로젝트로는 동경대학에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를 대표로 들 수 있다.⁵⁵

3. 일본에서의 이슬람 다와 전망

일본에서 이슬람 다와는 무슬림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서 다와 중의 하나가 바로 경전 번역인데, 원래 번역해서는 안 되는 꾸란이 1972년에 일본어로 번역되어 1년 사이에 5천부가 발행되어 2,388부가 배부되었다. 그러나 실제 일본인 무슬림은 턱없이 잡아도 128명에 불과하였다.⁵⁶ 1976년 ‘일본 종교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무슬림 숫자는 2만 5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⁵⁷ 이는 제일 이주 무슬림이 포함된 숫자일 것이다.

1995년 12월 기준으로 일본에 외국인노동자 등록 수는 약 136만 명이다. 이중 이슬람권 출신자는 약 3만 5천명에 이르고, 초과 체류자를 포함하면 약 28만 5천 명에 이른다. 2007년 말 기준으로는 제일 외국인 수가 2백만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일 무슬림 통계가 출처마다 다르기는 하나 무슬림인구 통계 기관(islamicpopulation.com)이 추산한 일본 무슬림 18만3천 숫자는 이주 무슬림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무슬

53 http://www.islam.waseda.ac.jp/article/wias/event/g2/2008/20090211/announce_en/2009-0502

54 Sato Tsugitake, "An Invitation to Islamic Area Studies"; 1997년 가을 명지대학교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이슬람학회에서 발표된 글임.

55 이 연구 결과물은 'Islamic Area Studies Working Paper Series'는 no.1-no.19.로 나와 있다.

56 Morimoto, 앞의 글, p.42.

57 위의 글, p.96.

림은 12년만에 약15만 명이 증가한 셈이다. 제일 이주 무슬림들은 주로 이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지 출신으로 거의 도쿄 근교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이슬람 가도(街道)’라고 불린다.⁵⁸ 무슬림을 위한 할랄 식자재를 공급하는 가게와 기도처가 생기게 되어 자연스럽게 이슬람 독자적인 문화권이 형성된 것이다. 일본인을 향한 이슬람 다와는 주로 이런 지역에서 이주 무슬림과 결혼을 하는 일본여성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미 많은 일본 여성이 이주 무슬림들과 결혼하였고 그중 상당한 숫자는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기도 한다.⁵⁹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이슬람에 관한 관심과 무슬림 숫자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일본 무슬림 사회에 제시된 개종자의 잠재적 숫자는 일본 전체 인구로 볼 때 아주 작은 퍼센트를 차지한다. 일본 무슬림의 대부분이 노동자와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집단적으로 주요 대도시에 집중해 있다. 무슬림 학생회나 지역 사회에서 캠프 및 모임이 열여 주변에 이슬람 이해를 증진시키고 서로 간에 결속을 다지기도 한다. 무슬림들의 종교와 공동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스크로서 무슬림들 삶의 중심축이 되는데, 일본인 무슬림들의 참여는 거의 없고 모스크 이맘이나 관리자도 이주 무슬림들이 맡고 있다.⁶⁰

일본에서 이슬람 ‘다와’ 활동은 모스크 뿐 아니라 이슬람 기관들을 중심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기관들의 주요 활동은 전도와 교육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기관들은 이주 무슬림들에게 정보를 나누어 주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관심과 배려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무슬림들의 연결망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일본 무슬림협회(Japan Muslim Association)는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과 상호관계를 위해 무슬림국가들에 유학생들을 파송하고 귀국 후 그들이 이슬람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협회의 목표는 일본 이슬람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인류 평화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⁶¹ 이슬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 종교들과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일본의 상황에서 이슬람 협회가 취하고 있는 다와의 중요한 방법으로 인

58 "Islamic Avenue", *Aera*, July, 1996, no.29.

59 필자가 1998년 봄 동경에서 만난 일본 한 여성은 6년 전 방글라데시 남성과 결혼하였는데 남자의 폭력 때문에 이혼했다. 그녀에 의하면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이 많다고 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선교사에 의하면 실제로 2008년 방글라데시 이민국에 1000명 이상의 일본여성들이 왔다갔다 한다고 한다.

60 Morimoto, 앞의 글, p.10.

61 Japan Muslim Association, *The information of Japan Muslim Association*, Tokyo, 1997.

62 www.islamicbulletin.org/newsletters/issue_19/news.aspx 2009-05-02

식된다.

세계 여러 나라 출신의 무슬림 대표들이 함께 설립한 국제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일본 이슬람센터(Islamic Center-Japan)’의 선교방법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구체적이다. 그것은 관심자들에게 이슬람 교리 설명과 신앙고백 제시, 문서발간, 순례, 인터넷 등을 통한 선교이다. 직접적 다와로서 일본 여성과의 이주 무슬림 남성이 결혼하거나, 기도처를 설립하고 그리고 무슬림 청년회 등을 조직한다. 또한 효과적인 다와를 위한 방법으로 이슬람국가 현장 탐방, 이슬람국가의 국빈 내방 시에 기자나 관료 접촉, 사회 복지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를 빌려 평화 기도회 개최와 이슬람 문서 배부 등이 사용된다.

도쿄의 이슬람 센터는 이주 무슬림 남성들과 결혼하는 일본 여성들의 중요한 활동 근거지가 된다. 그 이슬람 센터 총무에 따르면, “일본여성들이 이슬람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이슬람이 여성들을 보호하고 귀중히 여기는 점이 이슬람에 있기 때문이다”고 전하면서, 2009년 만해도 벌써 80쌍이 결혼했다고 한다.⁶² 이와 같은 인터넷과 책자를 통한 이슬람 여성관에 대한 홍보는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속한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무슬림 협회나 이슬람 센터는 아랍어 강좌, 꾸란 연구, 영성 캠프,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오해 시정 요구 등 다양한 다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무슬림들은 단일 민족적 일본 문화를 하나의 지역 문화로 인정하고 지구촌 시대의 이슬람 다와 정책의 폭을 넓히고 있다.⁶³ 그러면서 무슬림들은 일본사회에서 자신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5가지 신앙실천과 할랄 음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슬람의 다섯 가지 실천 신앙은 무슬림들의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이슬람의 힘이고 상징이며, 그 상징들은 무슬림들의 에토스와 세계관을 통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⁶⁴ 단일 민족적 에토스가 강한 일본에서 무슬림들의 다와는 이 같은 자기 정체성의 표현과 더불어 인류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슬람의 목표가 일본의 국가 목표나 사회 가치에 부응한다는 주장에 맞게 자신들의 사회생활 향상을 포함시키고 있다.⁶⁵

63 Morimoto, 앞의 글, pp.90-91.

64 클리퍼드 기어츠 저, 문옥표 옮김, 『문화인류학』(서울: 까치, 1998), p.163.

65 www.islamawareness.net/Asia/Japan/history.html 2009-05-02

V. 맺는 말

일본과 이슬람은 자기를 구심점으로 한 외연적 확대와 통합이라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일본의 이슬람 역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것이고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서로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힘과 이익의 역학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상호관심이 더욱 촉진되고 있는 현실이다. 상호관심의 이면에 놓여있는 각자의 목적이 종교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이라는 복합적 차원을 지니고 있지만, 이익과 세력(interest and power)의 증대를 위해 서로의 관계는 요동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더욱 필요해진 것이다. 일본의 문화·종교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이슬람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무슬림 사회가 일본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필요를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법학자이며 무슬림인 압둘라히 안 나임은 세속주의에 이슬람의 접근법을 설명하면서, 무슬림들의 종교적 실천은 해당 지역의 관습, 정치적·법적제도, 그리고 문화 등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 오늘 날의 무슬림 태도와 행동은 비 이슬람 사회와의 경제적·안보적 관계에서 형성된다는⁶⁶ 그의 주장은 일본의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천황제의 신비성이 근대의 국제적 격변기에 일본을 지키고, 아시아에 대한 지도자로서 자의식을 일본으로 하여금 갖게 하여 일본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동원화 할 수 있었다. 일본 보수 정치가들의 의식 기저에 있는 이런 황국사상이 오늘 날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일부 학자들은 지적하며 우려한다. 그러나 이런 강한 민족 국가의식 때문일까, 세계가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 일본은 자신 있게 대응하는 것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들은 이슬람의 도전을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정치 경제적으로 중심적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지도 모른다.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에서 이탈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이룰 수 없는 집단적 사회라는 점에서 일본과 이슬람은 상당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외면적 행위를 중요시하는 점에서도 양자는 비슷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심점을 이루는 요인들이 각

66 압둘라히 안 나임, "국가정치와 국제관계에서의 정치적 이슬람교", 피터버거 엮음, 김덕영, 송재룡 옮김 『세속화나 탈세속화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p.159. 압둘라히 안 나임은 수단 출신 무슬림으로서 에모리대학 법학교수이다.

각 다르고 문화와 기질도 다르다. 집단적이면서도 극히 개인주의적인 일본사회와는 달리 무슬림 사회에서 개인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일본 무슬림들은 일본에서 그 유사성을 매개로 다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거주 지역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상황화 하며 이슬람 다와를 전개하고 있는 무슬림들의 도전성에 한국도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의 도전에 자신 있게 대응하며 국가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본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도전에 놀람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대응할 때 예상 외의 놀라운 선교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Islam in Japan

Kim, Young Nam

Many religions coexist in Japan, where believers are far more than the total population number of the nation because believers belong to more than two religions. The reason of that religious situation is grounded on the Japanese view about religion. The Japanese view is inclusive rather than exclusive about the truth. It is said that people in Japan are very reasonable and worldly, on the other hand, religious and superstitious.

In the beginning of modern generation Japan biased toward an ideology in the religion, making Shintoism as the state religion.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has religions in its control in the purpose of colonialism in the Asia. After the end of the war the religions in Japan have been allowed freedom, but nationalism centering the emperor has strengthened recently, designating the memorial day of the flag and the national anthem.

In spite of that situation religions in Japan seek to grow and affect on society. Christian have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s in that society even though they are under 2% of the population. In the new millennium age Islam whose believers are 0.12% of the population is getting power in Japan, showing the strong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Islamic world. Muslim numbers in Japan can not be identified exactly, however it is said that muslims are over 15,000 including immigrant muslims.

The history of Islam in Japan started in 1887 when Japan emperor dispatched representatives to Osman Turkey Sultan to know each other in the confused global situations. It seemed to be in the desire of cooperation in the world power rather than religion. Al-Tugrul, Turkish merchant ship as a delegation, was wrecked in returning to Turkey. Some Japanese people rescued few survivors and help them. One who went Turkey to comfort the dead's families came back to Japan as a muslim and contributed to relationship between the both.

Islam history in Japan has five divisions in large : the time of Japanese' acceptance of Islam(1891-1922), the time of inflow of muslim from Russia and Central

Asia(1923-1952), the time of the inflow of muslim students and dawa leaders from India and Pakistan(1953-1972), the time of Japanese concern to the Arab states and Islam(1973-1976), and from 1976 to the present time, when Japan is concerning about world affairs in Islamic world and increasing their knowledge about Islam. Especially economic department is interested in Islamic monetary inflow which is happening in over the world.

In the early muslim society in Japan there were very few muslims, and most of muslims were immigrants from the South Asia, who built the mosques in Kobe(1935), Nagoya and Tokyo(1958), and Osaka(1977). Now Islamic temples are over 100 including small prayer places.

Muslim dawa leaders have attempted contextualization to spread Islam effectively in the Japanese contexts. Studies on Islam in Japan before the 1945 had been worked by government's initiative in the political aspect. At that time almost 10 Islamic institutes had worked and more than 100 books about Islam were published. It was after the end of the World War II that Islamic institutes have worked on the purpose of religion.

Understanding each other the muslim and the Japanese was not positive, but now is getting better with momentums of restoring Islamic power. While muslims in Japan are striving to make good images, the Japanese people try to view muslims objectively not relying on the Western channels.

The oil shock in 1970's made Japan to have the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Arab world and interest in Islam. Japan is steady making progress the friendly relations with Islamic World, especially oil producing countries. The departments of Islamic Area Studies have been established in several universities in the face of the inflow of Islamic finances. The government also has held conference of 'dialogue between Japan and Islamic world' for mutual understanding in culture and religion.

Islamic institutes are proceeding on the dawa through activities such as publishing literatures, social net works in immigrants,, international marriage, establishing islamic centers. They are also using the chances to visit Islamic world. Muslims in Japan are extending their net works to the global level.

Recognizing the need of the contextualization in Japan, muslims consider Jap-anes mono ethnical culture as a local culture in the Islamic perspectives with the global mission strategies. They strive o keep their religions uniqueness, attempting contextualization. They alos argu that Islam could reach the goal and social

values which Japan is pursuing of and leads people to the happiness.

Recently Japan and Islam world are get closer than ever before because they need each other for their own interests and power in the global context.

Key Words: Islam, Japan, Muslim, Dawa, contextualization, Arab world,
Christian, Shindoism, religion, nationalism, interest. power